

감성형 미식관광 ‘한입의 완주’ 성료

완주문화재단, 미식·영상·공연 결합 프로그램 진행... 사전신청률 98%·만족도 92.4%

완주문화재단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지역 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감성형 미식관광 프로그램 2025 한입의 완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 농산물이 가진 가치와 생산 여정을 주제로, 미식·영상·공연이 결합된 체험형 미식관광 모델로 기획되었다. 한입의 완주는 밭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 농가의 노동, 청년 기획자의 시도, 로컬 창작자와 뮤지션의 참여를 관광 경험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 관광콘텐츠로 의미를 더했다.

프로그램은 △완주 농가·생산자 스토리 영상 상영 △완주 9품을 활용한 3단 로컬 도시락 제공 △지역 뮤지션 라이브 공연 △참여자 대화 및 교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의 시간·공간·감정을 공유하는 복합형 콘텐츠로 운영됐다.

총 90명(3회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신청률 98%를 기록하며 수요를 입증했다.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 92.4%, 재참여 의사 89.7%가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에서도 △테이블 세팅·현장 분위기 만족도(96.1%) △도시락 구성·품미 평가(88.3%) △영상 콘텐츠 감동·이해도(90.6%)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회차는 장소성·환경·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현장 기반 운영 방식으로 펼쳐졌



완주문화재단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지역 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감성형 미식관광 프로그램 2025 한입의 완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으며, 드라이브 인 페스타, 별빛주막: 소양점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하여 확장성을 검증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 내 카페 삼례로 등 지역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해 회차별 감성 경험에 다층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완주문화재단은 향후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계절별 식재료 기반 콘텐츠 확장 △스토리 기반 도시락 브랜드화 △미식 관광 거점 공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완

주형 미식 관광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완주문화재단 정철우 상임이사는 “한입의 완주는 미식과 문화가 결합된 완주형 체험 콘텐츠로, 로컬푸드 1번지의 지역 정체성과 완주 9품의 가치를 관광 경험으로 전환한 사업”이라며, “향후 미식 기반 체류형 관광 모델을 지속 확장해 완주만의 관광 서비스 브랜드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창 섬진강미술관, 이주영 작가 초대전

19일~12월 31일 개최

순창군 섬진강미술관이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주영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사선이 머무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속 풍경을 주제로 한다. 사계절의 자연과 일상의 장면을 속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과 섬세한 그림자의 움직임이 작가 특유의 감성과 표현으로 화폭에 담았다.

이주영 작가는 지난해 7월 섬진강미술관에서

2인 초대전을 통해 관객과 처음 만난 이후, 약 1년 만에 개인 초대전으로 다시 미술관을 찾는다. 특히 지난 전시 이후, 무등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 세계를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 작가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섬진강미술관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 여러분께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주영 작가 '섬진강 줄기따라'

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2026년도 정기대관 접수 시작

군산예술의전당이 지역예술인과 공연·전시 단계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티켓링크를 통한 순번예약시스템으로 접수일자(시간)를 예약하여 진행되며, 대관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접수 방

문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한 뒤, 예약일시에 맞춰 방문해 대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새벽 줄서기 등 대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티켓링크 순번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연대관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

일 오후 5시까지, 전시대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월 5일 오후 5시까지 티켓링크를 통해 순번 예약이 가능하다.

티켓링크 순번 예약 후 대관 접수는 △공연은 12월 1일~3일 △전시는 12월 4일~5일 기간 중 본인의 예약일에 맞춰 군산예술의전당 지하1층 리허설룸을 방문해 대관신청하거사와 공연(전시)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문화재단, ‘꿈의 극단 전주’ 첫 정기공연 개최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5개년 중·장기 프로젝트 ‘꿈의 극단 전주’의 첫 정기 공연 ‘두드림’이 오는 22일 오후 4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17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단원들이 우연히 발견한 ‘소원 랩프’를 통해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들어가며 시작된다. 그곳에서 각자의 꿈과 상처를 마주한 아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며 ‘함께’의 의미를 깨닫는다. 현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스스로 무대를 완성하며 ‘Do Dream! 두드려봐! 우리는 모두 꿈의 주인공!’이라는 외침으로 성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두드려 세상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해 온 첫 정기공연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



께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극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 및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예술교육팀(070-4236-9337)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전주기전대학 총장배 아마추어 합창대회 성료

전주기전대학교(총장 조희천)는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전주기전대학 총장배 아마추어 합창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1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 대회는 전북지역 아마추어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된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예술 참여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합창대회는 아마추어 합창단에게 실질적인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합창을 통해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총상금 700만 원을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시상 은 대상 3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2명) 각 50만 원 등이다.

영예의 대상은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합창단 ‘소니벨’이 차지했다. 소니벨은 호소력 있는



하모니와 안정적인 앙상블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빛소리합창단이, 은상은 베드르남성합창단이 각각 수상했다. 또 동상은 제이미션 콰이어와 전주엘여성합창단이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시립국악연수원 수강생 발표회 20일 개최

남원시는 오는 20일 저녁 7시, 청아원에서 시립국악연수원 수강생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관소리·가야금·무용반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국악 강습반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로,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행사로 진행된다.

연수원은 시민들이 우리 전통음악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국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악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열린 국악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가야금반의 민요연곡, 성금런류, 창작곡 ‘쉼’ 등이 연주되며, 관소리반의 춘향가 중 사랑가, 남도민요 그리고, 무용반의 소고춤, 진도북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노력을 담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한층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행사는 무료로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